

해남 오시아노 ‘세계적 캠핑관광지’ 가능성 입증

사흘간 전남캠핑관광박람회 개최
3만5천명 방문...관광·전시 호평
대중화·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평가

국내 유일의 캠핑과 관광 융합형 축제인 '2025 전남캠핑관광박람회'가 해남 오시아노관광단지에서 사흘간의 일정으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20일 해남군에 따르면 지난 17-19일 오시아노관광단지 일원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 캠핑 관련 100여개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캠핑대회에만 4천여명의 캠핑객이 몰리는 등 큰 관심을 받았다.

행사기간 동안 박람회장과 캠핑장을 찾은 관람객은 3만5천여명(19일 정오 기준)으로 집계됐다.

이번 박람회는 25만㎡ 규모의 오시아노관광단지를 배경으로 다양한 캠핑카, 카라반, 캠핑용품 전시·체험이 함께 진행돼 '캠핑의 모든 것'을 선보이는 국내 유일 행사로 자리매김했다.

캠핑족들이 오시아노 해변을 가득 메운 가운데



데 친환경 캠핑 포럼·캠페인·음악공연 등이 어우러져 캠핑문화의 대중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람회에는 국내·외 유수의 캠핑 관련 기업들이 참여해 최신 트렌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장



해남군에서 열린 2025 전남캠핑관광박람회 모습. <해남군 제공>

이 마련됐으며 가족 단위 관람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행사 기간 동안 캠핑 쟁가게임, 장작 놀이쌓기 대회, 캠핑고시, 부시크래프트, 농활캠핑, 해명 힐링라운지, 캠크닉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특히 박람회장 인근 무인도 '닭섬'에서는 오프그리드(Off-grid) 라이프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돼 일대에서 벗어나 자연 속 자립생활을 경험하려는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와 함께 자연환경에너지관을 운영해 '환경과 인간의 공존'을 주제로 한 전시를 선보였으며, 현장에서는 '빈손 캠핑'을 유도해 지역 농수특산품을 구매·소비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었다.

한편 이번 전남캠핑관광박람회는 오시아노관광단지 내 파인비치골프링크스에서 열린 LPG A 대회와 동시에 진행되며 화요일엔 관광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세계 150여 개국에 중계된 LPG A 대회를 통해 해남 화원의 청정 자연환경이 전 세계에 소개되며, 스포츠·캠핑·휴양이 결합된 글로벌 관광지로 성장할 가능성을 입증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화원 오시아노관광단지가 RE100 국가산단 유치와 에너지신도시 조성 등 해남의 미래 산업과 맞물려 정주 여건 개선과 관광 활성화의 시너지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며 "박지원 국회의원과 전남도와 협력해 세계인이 찾는 캠핑관광 중심지로 육성하고, 국제행사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필용 기자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국제행사 승인 ‘총력’

2028년 4월21일 해변공원 일원서

해조류 이해관 등 7개 전시관 운영

완도군이 '2028 완도국제해조류산업박람회' 국제 행사 승인을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일 완도군에 따르면 국내 최대 해조류 생산지인 군은 지난 2014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해조류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다.

특히 2017박람회는 약 100만명의 관람객이 다녀갔으며 해조류 관련 해외 기업·바이어 유치, 3천억원에 달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거두며 해조류산업의 가능성을 대내외에 입증했다.

2028 완도국제해조류산업박람회는 해조류의 미래 가치를 높여 해조류 산업화·세계화는 물론 대규모 산업형 박람회로 개최해 수산 식품수출을 선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기획됐다.

2028년 4월21일부터 5월14일까지 완도 해변공원 일원에서 '해조류, 생명의 기원에서 인류의 미래로'라는 주제로 해조류 이해관 등 7개 전시관 운영과 국제 해조류 심포지엄, 수출 상담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전시 행사를 넘어 ▲블루카본으로서의 해조류 미래 비전 제시 ▲기후변화 대응 식품산업 모델 개발 ▲글로벌 교류 확대를 통한 산업형 박람회 정착 ▲수산업 중심의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종합적인 목표를 세웠다.

군은 지난 5월 '2028 완도국제해조류산업박람회 기본 계획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으며 국제 행사 승인을 위해 전남도와 함께 해양수산부와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10월에는 국제 행사 개최 계획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할 계획이며, 정부 심의 통과, 국제기구 및 관계 기관과의 연대 강화, 박람회조직위원회 구성 등 철저한 준비를 바탕으로 박람회를 유치하겠다는 전략이다.

국제 행사 승인은 정책성 등급 조사 등을 거쳐 2026년 상반기에 이뤄질 예정이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2028완도국제해조류산업박람회는 완도 해조류의 우수성을 알리는 것과 더불어 완도군이 해조류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중심지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정부의 국제 행사 승인과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해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말했다.

/완도=윤보현 기자



함평군 ‘곤충산업·생태교육’ 활성화 나선다

郡-교육지원청-영농조합 ‘맞손’

초등 ‘생물의 한살이’ 단원 연계

함평군이 곤충산업 활성화와 생태교육의 상생 발전을 위해 지역 기관들과 손을 맞잡았다.

20일 함평군에 따르면 최근 전남도함평교육지원청, 함평나비영농조합법인과 함께 '곤충산업 활성화 및 생태교육 연계 협약(MOU)'을 체결했다.

《사진》 이번 협약은 초등학교 3학년 과학 교과 과정의 '생물의 한살이' 단원과 연계해 학생들의 학습 흥미를 높이고 능동적인 탐구활동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의 곤충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농가의 나비 사육기술 지원(민간) ▲행정·제도적 지원(군) ▲생태교육 프로그램 운영(교육기관) 등으로, 민·관·학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선순환 구조 구축에 중점을 뒀다.

이를 통해 생태교육과 곤충산업이 함께 성

장하는 지역 상생 모델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함평나비영농조합법인은 협약 당일 학생들을 위해 500만원 상당의 '나비 한살이 관찰 세트' 100개를 기부했으며, 앞으로도 매년 지속적으로 기부하기로 약속해 상생 협력의 기반을 더욱 강화했다.

함평군과 교육지원청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생태교육 확대, 곤충체험 프로그램 운영, 산업연계형 교육 모델 개발 등 지속 가능한 협력체계를 이어갈 방침이다.

박정애 교육장은 "학생들이 직접 생명을 키우고 관찰하는 과정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과 배움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의 모범사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이번 협약은 생태교육과 곤충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 협력의 출발점"이라며 "민·관·학이 긴밀히 협력해 지역산업과 연계된 특화 교육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함평=김연수 기자

무안 일부 학교 수의계약 지역업체 외면 ‘비판’

최근 3년 특정 외지업체 6곳 집중

지역 상생·균형 발전 정책 기조 배치

교육지원청 관리·감독 부실도 도마 위

무안 일부 초·중학교가 각종 공사·물품·용역 수의계약을 외지 업체에 집중적으로 맺고 정작 지역 업체와는 단 한 건도 체결하지 않아 지역 상생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20일 무안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일부 초·중학교가 최근 3년간 체결한 수의계약이 특정 6개 외지 업체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각종 공사·물품·용역 계약이 유사한 외지 업체에 반복적으로 몰린 것으로 나타났고 일

부 업체는 동일 연도에 여러 건의 계약을 연달아 수주해 학교와의 유착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지역 업체를 외면하는 일부 학교의 행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상생·균형발전' 정책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재명 정부는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경제 순환 구조를 강조하고 지방재정이 지역민의 일자리와 소득 창출에 직결되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교육 현장에서는 국가 정책이 공허한 구호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청의 관리·감독 부실도 도마 위에 올랐다. 무안군에 있는 대부분의 학교는 학교별 수의계약이 반복적으로 외부 특정업체에 몰리는

동안 감사나 행정지도가 단 한 번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주민 김모씨는 "학교가 지역을 위해 존재하는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외지업체만 챙긴다면 누가 지역경제를 지탱하겠느냐"고 지적했다.

한 교육 전문가는 "교육기관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공간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공공경제 주체"라며 "지역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지역 기업을 외면하는 것은 지역경제 순환의 고리를 끊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A학교 관계자는 "그동안 지역업체와의 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는 공정한 계약 관리에 신경 쓰겠다"고 해명했다.

/무안=김상호 기자

영암군보건소 ‘독감·코로나19’

동시 접종 당부...65세 이상 무료

영암군보건소는 20일 "6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인플루엔자(독감)와 코로나19 예방접종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접종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병의원 또는 영암군보건소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두 백신을 동시에 맞거나 1주일 간격으로 나눠 접종할 수 있다.

이번 예방접종에는 인플루엔자 3가 백신과 코로나19LP&I 백신이 사용된다.

접종 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접종 후에는 20-30분간 의료기관에 머물며 이상 반응을 관찰해야 한다.

또한 이달 27일부터 취약계층 대상 계절독감 예방접종도 병행한다. 접종 대상은 ▲14-18세 청소년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다문화 가정 구성원 ▲취약시설 입소자·종사자 등으로, 영암군보건소 및 도포·군서·서호·미암면 보건지소에서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다.

무료접종 대상자가 아닌 군민은 27일부터 병의원에서 1만원을 부담하고 선착순으로 접종할 수 있다.

박수희 영암군보건소장은 "최근 증가세인 코로나19예방을 위해 65세 이상 어르신은 두 백신을 함께 접종해 건강한 겨울을 준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암=나동호 기자



영광군, 탄소중립·기후위기 선제 대응

환경계획수립 용역 중간보고회

자연생태·토양 등 관리방향 제시

영광군이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선제 대응에 나선다.

20일 영광군에 따르면 최근 군청 소회의실에서 '영광군 환경계획 수립(2025-2040)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정책 방향과 주요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

보고회에는 송광민 부군수와 영광군 환경위원회 위원,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현황 분석 결과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초한 중·장기적인 환경보전·관리·이용·복원 등에 대한 계획과 정책 등을 공유했다.

영광군 환경계획 수립 용역은 군의 환경정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탄소중립·기후위기에

응답 미래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특히 자연생태·자연경관, 토양·지하수, 연안·도서, 대기 및 미세먼지, 통합 물환경, 순환경제, 환경보전, 기후위기 및 에너지 등 부문별, 사업별 계획 및 관리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보고회에서는 ▲직전 계획의 평가 ▲환경의식 조사 ▲부문별 현황 및 세부추진과제 ▲영광군의 환경비전 및 목표 등이 제시됐으며 참석자들은 군 실정에 맞는 실천 가능 과제 발굴과 군민 참여 확대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환경계획은 영광군의 환경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이 될 것"이라며 "군민 모두가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환경도시 영광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김동규 기자

“신안의 섬과 바다가 빚어낸 명품 새우젓”

24-25일 지도읍서 축제

신안군은 "오는 24-25일 이틀간 지도읍 신안젓갈타운 일원에서 '제9회 섬 새우젓축제'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축제는 김장철을 앞두고 신안의 청정해

역에서 생산된 새우젓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역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울리는 축제의 장으로 펼쳐진다.

축제는 개막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새우젓을 활용한 음식 무료 시식회, 노래자랑, 밴드 공연, 레크리에이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또한 '섬암산 섬 등산대회'와 '빨방 먹거리축제' 등 새우젓축제와 연계된 다양한 부대행사도 함께 마련돼 방문객들의 즐거움을 더할 예정이다.

신안의 청정해역에서 잡은 섬 새우젓은 게르마늄이 풍부한 신안천일염으로 담가 육질이 단단하고 감칠맛이 뛰어나며 면역력 강화, 뇌세포 성장 및 인지능력 향상, 염증질환 개선과 특히 소화 기능 및 장 기능 개선, 항암효과, 다이어트 등에 좋은 음식이라 알려져 있다.

/신안=양홍기 기자